5월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영숙 본재단 이사장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이하는 100인기부릴레이를 필두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로 이어진 재단의 5월 캠페인을 빛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100인기부릴레이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은 대통령영부인, 세명의 장관, 14명의 여야 국회의원, 12명의 기업CEO, 각계지도자와 재단임원으로 구성된 110명의 이끌이들과 6월13일 현재 릴레이에 참여한 2190명의 릴레이주자들이였습니다. 이들중에는 처음으로 참여하신 36명의 이끌이들, 6명의 5년연속 완주자들, 100명을 채운 이끌이가 그리고 31명이 2천2백6십만원을 모금한 이끌이가 함께 하고 있읍니다. 초등학생이끌이가 있었고

발대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5월 한달 동안의 5월캠페인은 벽화그림의 대변자회, 사진작가와 함께 한 사진콘테스트, 영화배우와 함께한 토크이벤트, 스테이크 하우스들이 베풀어준 음식나눔행사들, 일터나눔, 돌잔치나눔, 인세나눔 등의 이벤트들이 줄이였습니다. 이들 행사에는 각 부문의 유명인사들이 귀한 시간을 할애할 뿐만 아니라 재능과 공간,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봉사로 <여성희망 캠페인>으로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훈훈한 나눔을 이루게 하였읍니다.

재단이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이 캠페인의 일차적인 목표가 모금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는 것과 성차별 인식을 전환해 나가는 일입니다. 특히 재단이 창안해 낸 릴레이 형식의 기부행위는 참여자 모두가 기부자가 되는 동시에 모금자가 되는데 그 의미가 있읍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가 기부하는 일은 그래도 쉽지만 남에게 기부를 권유하는 일은 어렵다고들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는 나눔의 권유가 없어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기부 릴레이는 우리를 개개인에게 신선한 경험을 하게 하고 있는것은 다행입니다.

2007년도의 여성희망 캠페인의 주제는 <빈곤의 여성화 해소>입니다. 이것은 빈곤의 멍에가 여성쪽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성의 빈곤은 올해 여성의 자산소유율이 낮은데서 비롯되며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에게 미흡한 사회안전망제도, 지역조건 등의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는 교육기회가 줄어들고 있는등에서 그 원인을 확인할수 있읍니다. 더욱문제되는것은 최근에 더욱 심각한 가족해체로 인해 증가추세에 있는 여성가장들이 남성보다 취약한 위주의 노동시장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해고등에 의한 소득중단시 남성에게 주어지는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이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장의 빈곤문제는 항상 주거, 자녀교육, 의료등의 문제해결에도 취약해 있어서 빈곤이 대물림 되는데서 심각한 것입니다.

6월13일 현재 100인기부릴레이의 총모금액은 1억1천여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모금액은 재단의 파트너단체들의 빈곤의 여성화 해소활동에 쓰일 것입니다. 세상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불가항력의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를 강제 했던 호주제가 폐지된 지금 여성계의 활동과 경제적 환경등 우리 그것은 빈곤의 여성화 현실을 외면한채 그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상황들만을 자랑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추진해야 하는 모금행사가 기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불쑥불쑥 솟아나는 여성희망 캠페인에 대해 분명히 곤란을 느끼는 이들도 있겠지만 꿈을 베풀어 나가려는 공감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나눔의 손길이 절망하고 있는 여성이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였다는 보람과 뿌듯함이 내년에도 이어져서 딸들과 아들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행진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5월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댁의 ... 바랍니다. 박영숙 가정에 행복이 더하기를---